

[첨부]

2024년 사회교리주간, 대림시기 강론 자료 1

교황님의 회칙인 찬미 받으소서를 읽으면서 공동의 집인 지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다. 전 세계의 생태위기 상황들(토양-대기-수질오염, 생물 다양성 상실, 인간 삶의 질 저하와 사회 붕괴)과 악화되는 불평등에 미적 미적거리고 있는 정책과 실천에 대해서 쓰여진 구절들은 뜨거운 여름날을 더 뜨겁게 느끼게 하였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밝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건만, 제대로 보면 볼수록 밤이 되어도 낮처럼 밝은 조명들로 인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망가뜨렸던 것이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더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버리면서 뜨거워지고 있는 중이다. 그 뜨거움을 조금이나마 천천히 진행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한번 기울어진 지구를 다시 제자리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다.

올해 여름만 봐도 그렇다. 폭염이 계속되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제대로 자본적이 없을 정도이다.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 요금폭탄과 함께, 세상을 더욱 폭염으로 몰아간다는 생각에 에어컨 켜는 것이 미안했다. 그래서 열대야에 제대로 잠을 못 잘 때에는 새벽에도 몇 번씩 찬물 샤워를 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몇 번씩 찬물샤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잠을 못 잤다. 그러다보니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미사 전례나 여러 가지 사목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봐... 며칠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 자신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안 사용하고, 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엄청 더워서 참기 힘들 때에는 에어컨을 틀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세상에는 에어컨을 틀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도 있겠고, 그들은 대체 어떻게 이 여름의 뜨거움을 이겨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산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결과물, 즉, 고통은 가난한 이들이 더 많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 관점은, 인간 대 인간, 즉 개인들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국가 대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다.

예전 인류의 조상들은 밭을 갈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18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 초반 사이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서 나아갔던 나라들은 그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였다. 그런데 개발도상 국가들이 경제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려는데, 지구는 한계에 도달해버린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발전을 통해 부유해졌는데, 이것이 바로 불평등한 부분이며 교황님께서는 이것을 빛, 즉 생태적 빛이라고 표현하셨다. 먼저 발전하여 부유해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으니, 어찌 보면 발전하지 못한 가난한 나라들에게 빛을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빛을 갚는 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또한, 찬미 받으소서 159항에서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저 받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논리에 접어들게 됩니다.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속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하며, 161항에서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잔해와 황무지와 쓰레기를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소비, 낭비, 환경 변화의 속도는 지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불균형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세대 간에 생긴 불평등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160항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다스리도록 선물로 주셨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 세상을 빌려쓰고,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마치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양 살아왔고, 그러다보니 지구는 한계에 도달해버렸다. 그런데 지구의 한계는 오로지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인 후손들이 책임지고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지내왔다. 아주 풍족하게 살아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4계절을 만끽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의 아이들, 아니 미래의 아이들은 4계절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의 문제로 숨쉬고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정의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정말 마음깊이 느끼면서 생태환경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것의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생태의 위기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인 것이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온 방식,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던 방식, 자연환경을 대해왔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 자신이 변화되어야 이 위기가 해결될 것이다.

다시 한번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고, 하느님을 향해 조금 더 방향을 틀고 사는 것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더 노력하며 살아가시길 두손 모아 기도드려 본다.

2024년 사회교리주간, 대림시기 강론 자료 2.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뚜렷한 구분이 사라지고, 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가 잦아지면서, "동남아 날씨 같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런 날씨 변화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더 극단적인 날씨와 생태계 파괴가 현실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일상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2024년 피조물 보호 기도의 날에 교황께서는 인간의 무관심과 책임 의식의 결여가 기후 위기의 큰 원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자연을 훼손해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지구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선물을 당연히 여기며 개인의 편리와 이익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생태계는 물론, 우리 지구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의 문제가 아닌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하느님과의 관계까지도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러한 무관심은 환경에 대한 태도를 넘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함을 반영합니다.

교황께서는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3항에서 “타인을 향한 우리의 돌봄과 지구를 향한 우리의 돌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시며, 기후 변화가 “사회와 세계 공동체가 마주해야 할 주요한 도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며, 이들이 불평등과 불의 속에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신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 주요 원인이 아님에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환경 보호가 단지 자연을 사랑하는 문제를 넘어 인간에 대한 책임이자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돌보는 일은 곧 우리 공동체의 약한 형제자매를 돕는 길이며, 창조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기후 변화의 도전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 하느님을 찬미하며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무관심을 넘어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삶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합시다. 각자가 책임을 가지고 환경을 돌볼 때, 우리는 곧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사회교리주간, 대림시기 강론 자료 3

기후 위기와 신앙인의 자세

지난 여름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폭염, 너무나 덥고 너무나 불편한 여름을 지냈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가장 긴 열대야를 겪었는데, 기상학자들은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는 불안하고 불길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이 왜 이렇게 더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추구해 온 대량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 폐기하는 생활 방식은 지구 온난화라는 엄청난 후유증을 발생시켰습니다. 우리 인간만 편하게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과 탐욕이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생태계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멸종할 것이라고 생태학자들은 예고합니다. 만 년 전부터 시작된 안정된 기후를 바탕으로 꽃핀 인류의 문명도 위기 상황에 부딪쳐질 것이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한 암울하고 불길한 예측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이 기후 불안, 기후 우울을 느끼고 있다는 심리학적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기성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이 기후 불안을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생태계 위기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 위기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에 비해, 기성세대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에, 생태 위기에 대해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생태 위기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해 둔감하거나 무지한 기성세대가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기후 불안은, 지구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며,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몸에 중병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무기력을 절감하면서, 비관주의,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혼자서 대처하려다 보면 누구든지 비관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태도로는 기후 위기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나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와 연대할 때 서로 자극과 격려를 받을 수 있고, 기후 위기를 방지하고 조장하는 세력에 맞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지치지 않고 실천할 용기와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 상황 앞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5년에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셨습니다. 이 회칙은 생태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근원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새롭고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시고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올해도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십시오>라는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작년 2023년에 <하느님을 찬미하여라>하는 사도적 권고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권고에서 교황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지구 온도의 섭씨 1.5도 상승하면 폭염은 더욱 자주 발생하고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며, 상승 폭이 섭씨 2도를 넘어간다면 그린란드의 빙하와 남극 대륙 상당 부분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버릴 것이며, 이는 모두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우려하시며, 우리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도 작년 2023년 9월 1일에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라는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70년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모자 보건법을 반대합니다>라는 특별 사목교서를 발표하신 것이 첫 번째이고, 작년 정순택 대주교님의 특별 사목교서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별 사목교서가 인간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르침이라면, 두 번째 특별 사목교서는 생태계 생명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신자가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염려하시면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모든 신자가 배우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정 대주교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들도 제시하셨는데, 특별히 본당 사목협의회 안에 생태환경분과를 신설하고, 생태 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이 설립될 수 있도록 본당 신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특별 사목교서 발표 이후, 여러 본당에서 사목협의회 안에 생태환경분과를 설립하였고 하늘땅물벗 단체를 창립하였습니다. 하늘땅물벗은 우리 교회 생태운동의 핵심 조직으로, 현재 서울대교구, 인천교구, 그리고 제주교구에서 인준받았고, 여러 본당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9일에는 서울, 인천, 제주교구에서 하늘땅물벗 회원 400여 명이 명동 성당에 모여 제1회 하늘땅물벗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서로 친교를 나누고 생태 사도직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많은 본당에서 <하늘땅물벗>이 만들어진다면, 생태운동을 좀 더 지속적이

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생태계 위기의 심각함을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올여름, 우리가 겪은 폭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이 자연의 경고는 우리의 변화를, 생태적 회개를 요청합니다. 삶의 기준을 나의 편리함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2024년 사회교리주간, 대림시기 강론 자료 4

생태적 회개를 완성하는 하느님 나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

현 지구 생태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구 평균기온은 14°C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6차 종합보고서(2023년 3월)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 온도가 1.09°C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는 같은 해 7월 3일 지구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17.1°C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영향이었지만,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지구는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끓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온 인류에게 이에 대응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평균 기온이 1.45°C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100년까지 1.5°C 이상 지구평균 기온이 상승하지 않도록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5%, 2040년~2050년까지 Net-Zero(탄소중립)을 제시한 IPCC의 시간표가 위태로워졌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생활을 유지하는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문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온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파멸을 면하려면 극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세상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은 생활 양식, 생산과 소비 양식 그리고 사회를 다스리는 구조의 변화를 요청하고”(찬미받으소서-이하 LS, 5)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요청되는 변화에 많은 이들이 무관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변화를 위한 노력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음을 우려하십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부인하거나, 무관심하게 넘기려 하며, 기술의 발달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LS, 14)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큰 영향과 피해를 받는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이들과,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으로 경제를 유지하는 지역과 국가입니다.(LS, 25) 지금도 해수면의 상승으로 물에 잠겨가는 투발루와 같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과 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많은 지역민이 난민으로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LS, 26)

기후위기를 촉발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이

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삼림과 습지를 파괴하여 온 행동들은 모두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LS, 8)이기에, “기후변화에 관하여 차등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함(LS, 52)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 시간 하느님이 아닌 물질을 삶에 중심에 놓았던 인류의 죄로 인한 위기 상황이며, 생태적 회개가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통해 생태적 회개를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LS, 67)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됨을 일깨워 주십니다. 현대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군중이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은 옷과 먹을 것을 포함하여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라 명합니다. 세리와 군사들처럼 힘과 권력,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이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것을 명합니다. 내가 회개하였음을 증명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가난한 이들과 나누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회는 그 활동으로 자연 보호의 의무를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류가 자멸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함(LS, 79)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와 우리 모든 신자는 생태적 회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황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를 통해 “화석연료를 포기하고 풍력 에너지나 태양 에너지와 같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성당의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앞세워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제품들은 모두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이며, 쓰레기로 버려져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성당과 가정에서 1회용품을 거부하고,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 대중교통 이용을 일상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태도는 이제 우리 자신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먼저 가난한 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에 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욱 견고한 안전망이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이 대림 시기에 우리 모두 생태적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

하고 생태적 회개를 이룬다면, “우리과 함께 하시며 협력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실 수 있는 분”(LS, 80)이시기에, 우리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는 이 세상을 온전한 하느님 나라로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